

회차	고대의 한국사	
74	목책과 환호 등 방어 시설을 갖추었다.	청동기
74	농경과 목축을 통해 식량을 생산하였다.	신석기
74	지배층의 무덤으로 고인돌을 축조하였다.	청동기
74	거푸집을 이용하여 세형 동검을 제작하였다.	철기
74	여러 가(加)들이 사출도를 다스렸다.	부여
74	동맹이라는 제천 행사를 개최하였다.	고구려
74	민머느리제라는 혼인 풍습이 있었다.	옥저
74	읍락 간의 경계를 중시하는 책화가 있었다.	동예
74	왕 아래 상, 대부, 장군 등의 관직을 두었다.	고조선
74	단군왕검, 개천절	고조선
74	특산물로 단궁, 과하마, 반어피가 유명하였다.	동예
74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범금 8조를 두었다.	고조선
74	제사장인 천군과 신성 지역인 소도가 존재하였다.	삼한
73	반달돌칼을 이용하여 벼를 수확하였다.	청동기
73	주로 동굴이나 강가의 막집에서 살았다.	구석기
73	주먹도끼, 찌개 등의 편석기를 처음 제작하였다.	구석기
73	가락바퀴와 뼈바늘을 이용하여 옷을 만들기 시작하였다.	신석기
73	여러 가들이 별도로 사출도를 주관하였다.	부여
73	영고라는 제천 행사를 열었다.	부여
73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범금 8조를 만들었다.	고조선
73	신성 지역인 소도가 존재하였다.	삼한
73	제가 회의에서 나라의 중대사를 결정하였다.	고구려
73	도둑질한 자에게 12배로 배상하게 하였다.	부여, 고구려
73	삼로라는 군장이 다스림	옥저
73	신지, 읍차 등의 지배자가 있음	삼한
72	주로 동굴이나 강가의 막집에서 살았다.	구석기
72	지배층의 무덤으로 고인돌을 축조하였다.	청동기
72	농경과 목축을 시작하여 식량을 생산하였다.	신석기
72	호미, 쇠스랑 등의 철제 농기구를 제작하였다.	철기
72	주먹도끼, 찌개 등의 편석기를 처음 제작하였다.	구석기
72	민무늬 토기, 반달돌칼, 사유재산/계급 발생	청동기
72	[나라] 수도 왕검성	고조선
72	[나라] 왕 아래 상, 대부, 장군 등의 관직 / 범금 8조	고조선
72	[나라] 여러 가(加)들이 별도로 사출도를 주관하였다.	부여
71	편석기 / 연천 전곡리 유적 / 주먹도끼	구석기
71	주로 동굴이나 바위 그늘에서 살았다.	구석기
71	청동 방울 등을 의례 도구로 사용하였다.	청동기
71	파비와 팽이로 땅을 갈아 농사를 지었다.	철기
71	거푸집을 이용하여 세형동검을 제작하였다.	청동기/철기
71	빗살무늬 토기를 만들어 식량을 저장하였다.	신석기
71	도둑질을 하면 도둑질한 물건의 12배를 변상 / 소의 발굽으로 길흉 판단	부여
71	신성 지역인 소도가 있었다.	삼한
71	혼인 풍습으로 민머느리제가 있었다.	옥저
71	읍락 간의 경계를 중시하는 책화가 있었다.	동예
71	여러 가(加)들이 각각 사출도를 주관하였다.	부여

회차	고대의 한국사	
71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범금 8조를 만들었다.	고조선
70	철제 무기로 정복 활동을 벌였다.	철기
70	오수전, 화천 등의 중국 화폐로 교역하였다.	철기
70	많은 인력을 동원하여 고인돌을 축조하였다.	청동기
70	주로 동굴이나 강가에 막집을 짓고 거주하였다.	구석기
70	가락바퀴와 뼈바늘을 사용하여 옷을 만들기 시작하였다.	신석기
70	사유재산과 계급이 발생	청동기
70	신지, 읍차 등의 지배자가 있었다.	삼한
70	혼인 풍습으로 민며느리제가 있었다.	옥저
70	10월에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를 열었다.	동예
70	여러 가(加)가 별도로 사출도를 다스렸다.	부여
70	제가 회의에서 나라의 중대사를 결정하였다.	고구려
69	빗살무늬 토기 / 농경과 목축 시작	신석기
69	반달 돌칼 / 고인돌 축조	청동기
69	동굴이나 강가의 막집 거주	구석기
69	가락바퀴 / 뼈바늘로 옷을 만들어 입었다.	신석기
69	주먹도끼, 찌개 등의 쥔석기를 처음 제작하였다.	구석기
69	10월이면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데... 이를 무천이라 한다.	동예
69	해마다 5월이면 씨뿌리기를 마치고... 천신의 제사를 주관하게 하는데, 이를 천군이라 한다.	삼한
69	혼인 풍습으로 민며느리제가 있었다.	옥저
69	읍락 간의 경계를 중시하는 책화가 있었다.	동예
69	신지, 읍차 등의 지배자가 있었다.	삼한
69	여러 가(加)들이 별도로 사출도를 주관하였다.	부여
68	고창 고인돌 유적 / 반달 돌칼	청동기
68	주로 동굴이나 강가의 막집에서 살았다.	구석기
68	오수전, 화천 등의 중국 화폐로 교역하였다.	철기
68	가락바퀴 / 뼈바늘	신석기
68	제천행사 : 영고	부여
68	신성 지역인 소도가 존재하였다.	삼한
68	혼인 풍습으로 민며느리제가 있었다.	옥저
68	여러 가들의 각각 사출도를 주관하였다.	부여
68	특산물로 단궁, 과하마, 반어피가 유명하였다.	동예
68	왕 아래 상가, 대로, 패자 등의 관직이 있었다.	고구려
67	환호, 고인돌, 민무늬 토기	청동기
67	철제 무기로 정복 활동을 벌였다.	철기
67	주로 동굴이나 막집에서 거주하였다.	구석기
67	소를 이용한 깊이갈이가 일반화되었다.	고려
67	비파형 동검과 청동 거울 등을 제작하였다.	청동기
67	빗살무늬 토기에 음식을 저장하기 시작하였다.	신석기
67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에서 밤낮으로 음주가무를 즐겼다.	동예
67	10월에 지내는 제천 행사는 국중대회로 동맹이라 하였다.	고구려
67	영고라는 제천 행사를 열고 죄수를 풀어주기도 하였다.	부여
67	씨뿌리기가 끝난 5월과 농사를 마친 10월에 제사를 지냈다.	삼한
66	공주 석장리 유적 / 쥔석기 / 주먹도끼	구석기
66	반달돌칼로 벼를 수확하였다.	청동기

회차	고대의 한국사	
66	주로 동굴이나 막집에서 살았다.	구석기
66	반량전, 명도전 등 화폐를 사용하였다.	철기
66	빗살무늬 토기를 만들어 식량을 저장하였다.	신석기
66	가락바퀴와 뼈바늘을 이용하여 옷을 만들었다.	신석기
66	온 집 식구를 하나의 곁 속에서 넣어 두는 매장 / 삼로	옥저
66	신성 지역인 소도가 존재하였다.	삼한
66	혼인 풍습으로 민며느리제가 있었다.	옥저
66	범금 8조를 통해 사회 질서를 유지하였다.	고조선
66	여러 가(加)들이 각각 사출도를 주관하였다.	부여
66	정사암에 모여 국가의 중대사를 논의하였다.	백제
65	비파형 동검 / 민무늬 토기 / 사유재산과 계급 출현	청동기
65	소를 이용한 깊이갈이가 일반화되었다.	고려
65	많은 인력을 동원하여 고인들을 축조하였다.	청동기
65	실을 뽑기 위해 가락바퀴를 처음 사용하였다.	신석기
65	쟁기, 쇠스랑 등의 철제 농기구가 이용되었다.	철기
65	주로 동굴이나 강가에 막집을 짓고 거주하였다.	구석기
65	한나라(한 무제)의 침입으로 우거왕이 피살되고 왕검성이 함락되었다.	고조선
65	동맹이라는 제천 행사를 열었다.	고구려
65	신성 지역인 소도가 존재하였다.	삼한
65	읍락 간의 경계를 중시하는 책화가 있었다.	동예
65	여러 가들이 별도로 사출도를 다스렸다.	부여
65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범금 8조를 두었다.	고조선
64	갈돌/갈판, 빗살무늬 토기, 농경과 정착생활	신석기
64	소를 이용한 깊이갈이	고려
64	반량전, 명도전 등의 화폐 사용	철기
64	거푸집을 이용하여 세형 동검을 제작하였다.	철기
64	가락바퀴와 뼈바늘을 이용하여 옷을 만들었다.	신석기
64	영고라는 제천 행사를 열었다.	부여
64	한 무제의 공격으로 멸망하였다.	고조선
64	읍락 간의 경계를 중시하는 책화가 있었다.	동예
64	제사장인 천군과 신성 지역인 소도가 존재하였다.	삼한
64	마가, 우가, 구가 등의 관직명 사용 / 읍락이 여러 가(加)에 소속되었다.	부여
64	연의 장수 진개의 공격을 받았다.	고조선
64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범금 8조가 있었다.	고조선
63	경기도 연천군 전곡리 유적지 / 주먹도끼	구석기
63	빗살무늬 토기에 식량을 저장하였다.	신석기
63	지배층의 무덤으로 고인돌을 만들었다.	청동기
63	거푸집을 사용하여 세형동검을 제작하였다.	철기
63	주로 동굴이나 강가의 막집에서 거주하였다.	구석기
63	읍군, 삼로 지배자 / 단궁, 과하마, 반어피 특산물 / 책화	동예
63	신성 지역인 소도	삼한
63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	동예
63	마가, 우가, 저가, 구가 등이 다스렸던 지역	부여
62	반달돌칼로 벼를 수확하였다.	청동기
62	주로 동굴이나 막집에서 거주하였다.	구석기

회차	고대의 한국사	
62	소를 이용한 깊이갈이가 일반화되었다.	고려
62	호미, 쇠스랑 등의 철제 농기구를 제작하였다.	철기
62	가락바퀴와 뼈바늘을 이용하여 옷을 만들기 시작하였다.	신석기
62	사유재산과 계급이 발생 / 민무늬 토기 / 비파형 동검	청동기
62	정사암에 모여 재상을 선출	백제
62	여러 가(가)가 별도로 사출도를 다스렸다.	부여
62	읍락 간의 경계를 중시하는 책화가 존재	동예
62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법금 8조	고조선
62	제사장인 천군과 신성 지역인 소도가 존재	삼한
62	12월에 영고라는 제천행사	부여
62	혼인 풍습으로 민며느리제 존재	옥저
62	한 무제의 공격으로 멸망	고조선
61	동굴이나 막집에 거주하였다.	구석기
61	고인돌, 돌널무덤 등을 축조하였다.	청동기
61	명도전을 이용하여 중국과 교역하였다.	철기
61	농경과 목축을 통해 식량을 생산하였다.	신석기
61	비파형 동검과 거친무늬 거울 등을 제작하였다.	청동기
61	신지, 읍차, 5월/10월 제천 행사, 목지국, 사로국	삼한
61	신성 지역인 소도가 존재	삼한
61	연의 장수 진개의 공격을 받았다.	고조선
61	혼인 풍습으로 민며느리제가 있었다.	옥저
61	여러 가들의 별도로 사출도를 주관하였다.	부여
61	특산물로 단궁, 과하마, 반어피가 유명하였다.	동예
60	주로 동굴이나 바위 그늘에서 살았다.	구석기
60	반달 돌칼을 사용하여 곡물을 수확하였다.	청동기
60	빗살무늬 토기를 제작하여 식량을 저장하였다.	신석기
60	주먹도끼, 찌개 등 켜 석기를 만들기 시작하였다.	구석기
60	고인돌이 밀집되어 있고 계급이 발생하였다.	청동기
60	신성 구역인 소도를 두었다.	삼한
60	읍락 간의 경계를 중시하는 책화가 있었다.	동예
60	여러 가(加)들이 각각 사출도를 주관하였다.	부여
60	정사암 회의에서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였다.	백제
60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법금 8조를 만들었다.	고조선
60	영고라는 제천행사와 형사취수제라는 풍속이 있었다.	부여
60	단궁, 과하마, 반어피 등의 특산물이 있었다.	동예
59	충청북도 청주시 오송읍에서 주먹도끼, 찌개 등 편석기 가 발굴되었다.	구석기
59	철제 무기 로 정복 활동을 벌였다.	철기
59	주로 동굴 이나 막집 에서 거주하였다.	구석기
59	명도전 을 이용하여 중국과 교역하였다.	철기
59	반달 돌칼 을 사용하여 벼를 수확하였다.	청동기
59	빗살무늬 토기 를 제작하여 식량을 저장하였다.	신석기
59	단군왕검 이 세운 역사상 최초의 국가	고조선
59	무천 이라는 제천 행사를 열었다.	동예
59	신성 지역인 소도 가 존재하였다.	삼한
59	남의 물건을 훔쳤을 때는 12배로 갚게 하였다.	고구려/부여

회차	고대의 한국사	
59	왕 아래 상 가, 대 로, 패 자 등의 관직이 있었다.	고구려/부여
59	전국 7웅 중 하나인 연 과 대립할 만큼 강성 하였다.	고조선
58	가락바퀴 를 이용하여 실을 뽑았다.	신석기
58	주로 동굴 이나 막집 에서 거주하였다.	구석기
58	명도전 , 반량전 등의 화폐가 유통되었다.	철기
58	거푸집을 이용하여 세형 동검 을 만들었다.	철기
58	쟁기, 쇠스랑 등의 철제 농기구 를 사용하였다.	철기
58	빛살무늬 토기 / 갈돌과 갈판 을 사용하였다.	신석기
58	동맹 이라는 제천 행사를 열었다.	고구려
58	신지 , 읍차 라 불린 지배자가 있었다.	삼한
58	도둑질한 자에게 12배로 배상 하게 하였다.	부여 / 고구려
58	읍락 간의 경계를 중시하는 책화 가 있었다.	동예
58	왕 아래 상 , 대부 , 장군 등의 관직을 두었다.	고조선
57	고인돌, 사유재산, 계급 발생	청동기
57	주로 동굴이나 강가의 막집 에서 살았다.	구석기
57	반달 돌칼 을 사용하여 곡식을 수확하였다.	청동기
57	실을 뽑기 위해 가락바퀴 를 처음 사용하였다.	신석기
57	주먹도끼, 찌개 등의 편석기 를 만들기 시작하였다.	구석기
57	단군왕검 이 건국, 대종교에서 개천일 기념, 매년 10월 3일 마니산 참성단 건국 기념	고조선
57	살인, 절도 등의 죄를 다스리는 범금 8조 가 있었다.	8조법 (고조선)
57	벼슬: 상 가/ 대 로/ 패 자/ 고추 가, 10월 제천 행사: 동맹	고구려
57	10월 제사: 무천	동예
57	낙랑과 왜에 철 을 수출하였다.	변한 (삼한)
57	서옥제 라는 혼인 풍습이 있었다.	고구려
57	연의 장수 진개 의 공격 을 받았다.	고조선
57	가들이 별도로 사출도 를 다스렸다.	부여
56	고산리 유적에서 화살촉 , 갈돌 , 갈판 등의 석기가 나왔다.	신석기
56	고인돌 , 돌널무덤 등을 만들었다.	청동기
56	거푸집 을 이용하여 청동검 을 제작하였다.	청동기/철기
56	농경과 목축 을 시작하여 식량을 생산하였다.	신석기
56	주로 동굴 에 살면서 사냥과 채집 생활을 하였다.	구석기
56	쟁기 , 쇠스랑 등의 철제 농기구를 써서 농사를 지었다.	철기
56	혼인 풍습으로 서옥제 가 있었다.	고구려
56	12월 에 영고 라는 제천 행사를 열었다.	부여
56	정사암 에 모여 국가의 중대사 를 논의하였다.	백제
56	철이 많이 생산되어 낙랑과 왜 에 수출 하였다.	변한 (삼한)
56	특산물로 단궁 , 과하마 , 반어피 가 유명하다	동예
55	주먹도끼 , 찌개 를 사용하였다.	구석기
55	명도전 , 반량전 등의 화폐가 유통되었다.	철기
55	반달 돌칼 을 이용하여 곡식을 수확하였다.	청동기
55	거푸집 을 이용하여 세형 동검 을 만들었다.	철기
55	주로 동굴이나 강가의 막집 에 거주하였다.	구석기
55	빛살무늬 토기 를 만들어 식량을 저장하였다.	신석기
55	우두머리로 신지 , 읍차 가 존재하고 왜에 철 을 수출하였다.	변한 (삼한)
55	신성 지역인 소도 가 존재하였다.	삼한

회차	고대의 한국사	
55	삼로라 불린 우두머리가 읍락을 다스렸다.	옥저
55	여러 가들이 별도로 사출도를 주관하였다.	부여
55	단궁, 과하마, 반어피 등의 특산물이 유명하였다.	동예
55	한 무제가 파견한 군대의 공격으로 멸망하였다.	고조선
54	빗살무늬 토기, 갈돌, 갈판 등의 유물과 함께 정착생활과 농경을 시작했다.	신석기
54	가락바퀴를 이용하여 실을 뽑았다.	신석기
54	명도전을 사용하여 중국과 교류하였다.	철기
54	의례 도구로 청동 방울 등을 사용하였다.	청동기
54	거푸집을 이용하여 세형 동검을 제작하였다.	철기
54	많은 인력을 동원하여 고인돌을 축조하였다.	청동기
54	10월이면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데, 이를 무천이라 한다.	동예
54	신성 지역인 소도가 존재하였다.	삼한
54	훈인 풍습으로 민며느리제가 있었다.	옥저
54	읍락 간의 경계를 중시하는 책화가 있었다.	동예
54	제가 회의에서 나라의 중대사를 결정하였다.	고구려
54	여러 가(加)들이 별도로 사출도를 주관하였다.	부여
53	가락바퀴를 이용하여 실을 뽑았다.	신석기
53	반달 돌칼을 사용하여 벼를 수확하였다.	청동기
53	많은 인력을 동원하여 고인돌을 축조하였다.	청동기
53	거푸집을 이용하여 세형 동검을 제작하였다.	철기
53	주로 동굴이나 강가의 막집에서 거주하였다.	구석기
53	찍개, 찌르개 등 편석기를 처음 사용하였다.	구석기
53	연천 전곡리에서 주먹도끼가 출토되었다.	구석기
53	신지, 읍차 등의 지배자가 있었다.	삼한
53	제사장인 천군과 신성 지역의 소도가 존재했다.	삼한
53	훈인 풍습으로 서옥제가 존재하였다.	고구려
53	여러 가(加)들의 별도로 사출도를 주관하였다.	부여
53	남의 물건을 훔쳤을 때에는 12배로 갚게 하였다.	고구려/부여
53	부족 간의 경계를 중시하는 책화라는 풍속이 있었다.	동예